

SK, 청소년 쉼터 해피존 40곳 건립

SK그룹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1318(13-18세) 세대> 전용 쉼터 개념의 <해피존> 40곳을 전국에 만들기로 하고 11월22일 서대문구 영천동에 1호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SK와 복지부가 각각 105억원, 55억원 가량을 들여 추진하는 해피존 사업으로 교육과 문화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 5000명이 혜택을 보고, 관련 일자리도 120개 가량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SK는 2006년 안에 건립할 24곳을 포함 2009년까지 도시형 25곳과 농어촌형 15곳 등 모두 40곳의 해피존을 만들어 학습, 정보, 문화, 안전, 급식,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을 비롯해 지역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1호 개관행사에서 김용현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SK 기업문화실 전무는 “SK그룹은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학퀴즈 등을 지원하면서 면학을 장려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조직을 만들어 청소년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유도해 왔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립하고 건전한 문화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2>